

중국, "지능형 모빌리티 + 스마트 시티 인프라" 통합 추진

해당국가	중국	기관(기업)	공업정보화부(MIIT)	동향분야	정책	국토교통 기술분류	도시·공간
------	----	--------	--------------	------	----	--------------	-------

- 중국공업정보화부(MIIT)는 '25년 10월, '세계 지능형 커넥티드 차량 대회(WICV)'에서 지능형 모빌리티와 스마트 시티 인프라를 결합한 차세대 R&D 전략을 발표
 - 기존의 개별적인 스마트 시티 사업을 통합하여 차량-도로-클라우드(V2X)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'지능형 모빌리티 인프라 실증 사업'을 약 20개 도시, 35,000km 도로에서 테스트하도록 추진
 - AI를 활용하여 도시 교통의 고질적인 정체와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1,000개 이상의 노변 지능형 장치(RSU, Road Side Unit)를 설치하고 실시간으로 도시 공간 데이터를 동기화 주력
 - 이는 중국의 '제14차 5개년 계획' 마무리와 '제15차 5개년 계획(2026~2030)' 준비 과정에서 스마트 시티가 인공지능과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플랫폼이 될 것임을 명시
 - AI 기반 '지능형 커넥티드 모빌리티' 인프라 통합관리
 - 도시 전역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교통흐름을 최적화하고, 자율주행 차량의 안전한 도심 운영을 지원하는 '클라우드 기반 관제 시스템' 고도화
 - 인공지능과 자동차 산업의 깊은 통합을 통해 차세대 아키텍처와 고성능 칩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한 도시 운영 솔루션 제공
 - 디지털 트윈 및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
 - 노변 장치(RSU)를 통해 수집된 도로 정보를 기반으로 도시의 물리적 자산을 디지털 공간에 구현하고, 사고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여 대응하는 실시간 지능형 방재 체계를 강화
 - 특히 베이징, 상하이, 선전 등 주요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하여 도시 유지관리 효율을 높이는 실증 프로젝트 진행
 - 'AI+ 행동 계획' 기반 도시 거버넌스 지능화
 - 2025년 8월 발표한 'AI+ 행동 계획'과 연계해 2027년까지 도시 거버넌스의 70% 이상에 지능형 애플리케이션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R&D 투자를 확대
 - 이는 에너지 관리, 공공 안전, 교통 제어 등 도시 운영 전반에 생성형 AI 기술을 이식하여 데이터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 구축

※ 출처 : 중국 공업정보화부(2025.10.20.), China stepping up strategic push into smart mobility